

## 현대중국어의 초점 표현방식

이 범 열\*

<目次>

I. 머리말	III. 초점의 표현방법
II. 정보와 초점	1. 첨가를 통한 초점화
1. 정보의 유형	2. 이동을 통한 초점화
2. 정보의 위치	3. 생략을 통한 초점화
3. 초점의 유형	4. 전환을 통한 초점화
4. 초점의 위치	IV. 맺음말

### I. 머리말

일상적인 생활에서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언어를 사용하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청자로 하여금 전달된 정보를 명료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로 초점을 들 수 있다.

초점은 화자가 문장에서 전달하려는 가장 중요한 정보로 담화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초점은 정보적 초점(informational focus)과 대조적 초점(contrastive focus)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전자는 중요한 정보를 주장, 단언, 제시하기 위해 부각시키는 것이며, 후자는 대조의 방법을 통하여 강조의 대상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현대중국어의 초점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문법 또는 형식의미론의 관점에

\*釜山外國語大學校 中國語學部 講師

서 초점의 분류, 초점 요소, 초점의 위치, 초점구문에 관한 것이었다.<sup>1)</sup> 그러나 초점은 담화에서 정보 전달과 관련되는 담화 기능적 개념이다.

본 논문은 중국어 화자들이 일상적인 담화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초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초점을 ‘첨가’, ‘이동’, ‘생략’, ‘전환’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첨가’와 ‘이동’에 의한 초점화 방법이 문법적 측면에서 논의되었으며, ‘생략’은 초점화의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문법적 생략 현상에 대해서만 논의되었다. 또한 초점화 수단으로 ‘전환’의 방법은 연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 각각의 방법이 가져오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은 서로 다르다. 특히 중국인들이 일상적인 대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생략’에 의한 초점의 부각과 환유로의 ‘전환’을 통한 특성이나 특질의 초점화 방법을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교수하는 것은 매우 실용적인 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중국인들의 문화가 배어 있는 일상적인 표현을 토대로 의사소통의 기법에 관한 교육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4장으로 구성되며, 제 2장에서 정보와 초점의 관계를 유형과 위치의 면에서 논의하고, 제 3장에서는 초점을 현저히 부각시켜 표현하는 방법으로 첨가, 이동, 생략, 그리고 전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제 4장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 II. 정보와 초점

초점은 효율적인 정보의 전달과 이해를 위해 사용되는 담화 기능적 개념이다. 화자의 정보 전달과 청자의 이해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것으로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다. 따라서 화자는 담화목적과 관련된 가장 중요

1) 徐杰(2001), 袁毓林(2003), 徐烈炯·潘海華(2005), 殷何輝(2007) 등.

한 정보를 초점으로 명료하게 전달하고, 이를 청자로 하여금 용이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정보와 초점의 관계를 유형과 위치의 면에서 살펴보자.

### 1. 정보의 유형

일상적인 담화에서 전달되는 정보는 현실세계에 널리 알려진 보편적 정보, 타인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얻어지는 상황적 정보, 담화 시 전·후로 전달되는 문맥적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sup>2)</sup> 보편적 정보는 세상지식이나 화청자의 공유지식에 해당되는 것이며, 상황적 정보는 담화상황에 관련된 요소(화자, 청자, 담화시간, 담화장소, 담화에 관여된 대상 등)에 관한 정보이며, 문맥적 정보는 담화지점을 기준으로 선행문맥에서 전달되는 정보와 후행문맥에서 전달되는 정보이다.

- (1) a. 1949年新中國成立了。  
(1949년에 새 중국이 성립됐다.)
- b. 這位是張教授，他是我們的系主任。  
(이분이 張 교수이다. 그는 우리의 학과장이다.)
- c. 在這裡見到你，我很高興。  
(여기서 당신을 만나니, 나는 참 반갑다.)

(1a)의 ‘1949年新中國成立了’로 전달되는 정보는 중국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편적 정보이며, (1b)의 ‘他’는 선행문맥에서 언급된 ‘張教授’를 지시하는 것으로 문맥적 정보를 나타낸다. (1c)에서 ‘在這裡’는 ‘담화장소’를, ‘你’는 ‘청자’를, 그리고 ‘我’는 ‘화자’를 각각 지시하는 것으로 담화상황의 여러 요소들에 대한 상황적 정보를 나타낸다.

위와 같은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시 청자와 관련하여 신정보(new

2) 정희자, 《담화와 추론》, 서울: 한국문화사, 2002, 20쪽 참조.

information)와 주어진 정보(given inform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청자를 대상으로 화자의 추측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신 정보는 청자가 모르는 것으로, 화자가 언급함으로써 청자의 의식에 소개되는 정보인 반면, 주어진 정보는 화자가 언급하기 이전부터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또는 문맥이나 담화상황으로부터 예측 또는 복원 가능한 정보이다.

- (2) A: 張教授什麼時候來的?  
 (張 교수는 언제 왔니?)  
 B: 他是昨天來的。  
 (그는 어제 왔어.)

(2)에서 '張教授'는 대화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A와 B에게 알려진 주어진 정보이다. A의 질문 '張教授什麼時候來的?'에서 '張 教授가 이미 왔다'는 것을 전제로 '그가 온 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B의 대답 '他是昨天來的'에서 '他'는 A의 질문에서 이미 언급된 '張教授'를 지시하는 것으로, 대화자들의 의식 속에 현저히 남아 있는 주어진 정보인 반면, '昨天'은 B가 언급함으로써 A가 알 수 있는 신정보이다.

이처럼, 화청자의 공유지식이나 청자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청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정보, 또는 선행발화에서 언급되었거나 담화상황에 나타나기 때문에 청자의 의식 속에 현저히 존재하거나 예측 가능한 것을 주어진 정보라 하며, 청자가 모르는 것으로 화자가 언급함으로써 청자의 의식에 소개되는 정보를 신정보라 한다.

## 2. 정보의 위치

화자가 의사소통을 위해 전달하는 정보를 주어진 정보와 신정보로 구분하는 경우에 화자의 담화목적과 관련하여 정보 가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 가치는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주어진 정보보다 청자가 모르는 것으로 화자에 의해 새로이 전달되는 신정보가 높다. 또한 전달되는 정보량도 주어진 정보보다 신정보가 많다. 따라서 청자로 하여금 전달되는 정보를 용이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량이 적으며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주어진 정보를 문두에 배치하고, 정보량이 많고 정보 가치가 높은 신정보를 문미에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3) A: 你昨天怎麼過的?

(너 어제 어떻게 보냈니?)

B: a. (昨天)我看了一部電影。

((어제) 나는 영화 한 편을 봤어.)

b. (昨天我看的)那部電影很有意思。

((어제 내가 본) 그 영화는 아주 재미있었어.)

(3)에서 A의 질문 ‘你昨天怎麼過的?’에서 ‘你’는 담화상황에서 청자(B)를 지시하는 주어진 정보이며, ‘昨天怎麼過的?’는 A가 B에게 요구하는 정보이다. 이러한 질문(A)에 대한 대답 ‘昨天我看了一部電影’(Ba)에서 ‘昨天’은 선행질문(A)에서 이미 언급된 주어진 정보이며, ‘我’는 담화상황에서 화자(B)를 지시하는 주어진 정보이다. ‘看了一部電影’은 A의 질문에 협력하기 위하여 B가 제공한 신정보로 문미에 위치한다. 이어지는 B의 발화(b)에서도 이미 언급되어 주어진 정보가 된 ‘昨天我看的’을 생략하고 ‘那部電影很有意思’만을 전달한다. 이 경우에 ‘那部電影’은 선행발화(a)에서 언급된 주어진 정보이지만 후행발화(b)에서 새로운 주제로 등장하기 때문에 생략되지 않으며, 이 주제(那部電影)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신정보 ‘很有意思’를 초점으로 문미에 놓는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어진 정보는 정보 가치가 낮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역량(communicative dynamism)<sup>3)</sup>도 낮기 때문에 종종 생략된다.

3) ‘의사소통역량’이란 Firbas(1966a: 267-280)가 제시한 개념으로, 문장의 각 요

더욱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자는 간결한 표현으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 하려는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청자의 용이한 이해를 돕기 위해 (3)에서처럼 주어진 정보를 생략하거나 문두에 놓는 반면, 신정보는 초점으로 부각시켜 문미에 놓는다.

### 3. 초점의 유형

화자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청자에게 전달하려는 중요한 정보를 초점으로 선택하여 표현한다. 따라서 초점은 화자의 담화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화자에 의해 전달되는 초점은 정보적 초점과 대조적 초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두 초점의 사용 목적은 서로 다르다.

정보적 초점은 화자의 주장, 단언, 제시 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정보 가치와 의사소통역량이 높은 중요한 정보를 나타내는 요소가 초점이 된다.

(4) A: 主席團坐在哪兒?

(의장단은 어디 앉아 있니?)

B: a. 主席團坐在臺上。

(의장단은 단상에 앉아 있어.)

b. #臺上坐着主席團<sup>4</sup>。

(단상에 의장단이 앉아 있어.)

소가 의사소통을 추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화자의 생각을 표현하는 문장에서 문 요소 배열에 영향을 준다. 문두에는 의사소통역량이 낮은 요소가 배열되며 문미를 향해서 의사소통역량이 높은 요소가 배열된다. 또한 주어진 정보보다 신정보가 의사소통역량이 높으며, 신정보들 중에서도 의사소통역량이 높은 정보가 초점으로 선택된다. Chen(1995: 219)도 중국어에서 중요한 문 요소들의 배열은 의사소통역량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4) ‘#’는 문법적으로는 가능한 문장이나 담화상 적절하지 못한 문장임을 나타낸다.

(4)에서 A의 질문에 대한 B의 대답 ‘主席團坐在臺上’에서 ‘主席團’과 ‘坐’는 A의 질문에서 이미 언급되어 활성화되어 있는 주어진 정보이다. 이와는 달리, B가 제시함으로써 A가 알 수 있는 신정보는 ‘在臺上’이며, 이는 대화를 추진시키는 의사소통역량이 높은 정보적 초점이 된다. 이처럼 정보 가치와 의사소통역량이 높은 정보적 초점은 신정보로 문미에 배치되므로 ‘문미초점’이라고도 한다.<sup>5)</sup> 정보 가치가 높고 청자가 예측할 수 없거나 모르는 신정보를 문미에 배치하는 것은 문미의 요소가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기억에 가장 오래 보존되기 때문이다. 만약 B가 (b)로 대답한다면, 이는 신정보를 나타내는 ‘臺上’을 문두에 배치하고, 정보 가치가 낮은 주어진 정보 ‘主席團’을 문미에 배치함으로써 상대방(A)에게 인지적 부담을 주게 되므로 적절한 대답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보적 초점의 경우에 전달되는 명제가 같은 경우라도 화자가 ‘무엇을 초점으로 선택하여 강조하는 가’에 따라 문 요소의 배열이 달라진다.

- (5) a. 我喝過白酒。  
(나는 고량주를 마셔봤어.)
- b. 我白酒喝過。  
(나는 고량주 마셔봤어.)

5) 한 문장은 세 가지 층위인 ‘문법층위’, ‘의미층위’, ‘담화층위’로 생각할 수 있다. 예로서, 단어들이 문법구조에 따라 배열된 문장 ‘我喝了咖啡’를 생각해보자. 문법층위에서 ‘我’는 ‘주어’로, ‘喝’는 ‘동사’로, ‘咖啡’는 ‘목적어’로 명명되는 반면, 의미층위에서 ‘我’는 ‘행위자’로, ‘喝’는 ‘행위동작’으로, ‘咖啡’는 ‘피행위자’로 의미역에 따라 명명된다. ‘我喝了咖啡’가 실제 상황에서 사용되는 담화층위에서 ‘我’는 ‘주제’로, ‘喝了咖啡’는 주제(我)에 대한 ‘설명’(또는 평언)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我喝了咖啡’의 경우에 ‘我’는 문법적으로 ‘주어’이며, 의미상으로 ‘행위자’의 역할을 하며, 담화상으로 ‘주제’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모든 문장에서 주어가 ‘행위자’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주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정보적 초점으로 ‘주제’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선택되기도 하지만, 주제가 나타나지 않는 문장에서도 중요한 정보가 정보적 초점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정보적 초점은 단지 화자가 ‘중요한 정보’임을 청자에게 부각시키기 위해 선택한 담화 기능적 개념이다.

(5a)와 (5b)는 동일한 명제를 전달하지만,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려는 정보적 초점은 서로 다르다. 다시 말하면, (5a)의 화자는 자신이 마신 술이 ‘白酒’(술의 종류)임을 강조하기 위해 ‘白酒’를 문미에 놓는다. 이와는 달리, (5b)의 화자는 자신이 ‘白酒’를 마신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 ‘喝過’를 문미에 놓는다. 이처럼 화자가 강조하는 정보적 초점에 따라 문 요소의 배열이 달라지며, 문미에 배치되는 정보적 초점은 청자에게 신정보를 전달한다.

대조적 초점을 사용하는 목적은 상황에 따라 대조되는 대상들(contrastive candidates) 중 한 대상을 현저히 부각시켜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때 부각되는 요소가 대조적 초점이 되며, 이 대조적 초점은 신정보일 수도 있고 주어진 정보일 수도 있다.

- (6) a. 那本書是張教授寫的。  
 (그 책은 張 교수가 쓴 거야.)  
 b. 是我喝過白酒的。 (이범열 2010:177)  
 (내가 고량주를 마셔봤어.)

(6a)의 대조적 초점은 ‘張教授’이고, 전체는 ‘X寫了那本書’로, X에 해당되는 ‘陸教授’, ‘安教授’, ‘張教授’ 등 그 서적을 저술할 수 있는 잠재적인 대조의 대상들이 있음이 암시되며, 이들 중에서 화자는 ‘張教授’를 대조적 초점으로 선택하여 부각시킨다. 이 경우에 ‘張教授’는 (6a)의 화자가 언급함으로써 청자가 알 수 있는 신정보이다.<sup>6)</sup> (6b)의 화자는 ‘我’를 대조적 초점으로 부각시켜, ‘白酒’를 마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화자’ 자신인 ‘我’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 경우에 ‘X喝過白酒’의 ‘X’에 해당되는 대조적 후보로 화자를 지시하는 ‘我’, 청자를 지시하는 ‘你’, 그리고 화자와

6) 잠재적인 대조 대상들은 화자에 의해 암시되고 청자에 의해 배경지식을 토대로 추론된다. 잠재적인 대조 대상들에 대한 청자의 정체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도 여러 대상들 중에서 ‘누가 대조적 초점으로 선택되는 가’는 청자에게 신정보가 된다.



청자가 알고 있는 ‘王老師’, ‘趙研究員’ 등이 전제되며, 전제되는 대조적 후보들 중에서 ‘我’를 선택하여 초점으로 나타낸다. 이 경우에 화자를 지시하는 ‘我’는 담화상황에서 정체확인이 가능한 주어진 정보이다. 이처럼 대조적 초점으로 선택되는 요소는, 정보적 초점과는 달리, 신정보일 수도 있고 주어진 정보일 수도 있다.

#### 4. 초점의 위치

문장에서 초점이 나타나는 위치는 담화 및 초점의 유형과 관계가 있다. 담화의 유형으로 ‘능동적인 정보제시’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 수 있으며, 초점의 유형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보적 초점’과 ‘대조적 초점’을 들 수 있다. 담화 유형과 초점 유형의 상관관계를 보자.

##### (7) 老張明年退休。

(張형은 내년에 퇴직해.)

(7)의 ‘老張明年退休’는 발언권을 가진 화자가 능동적으로 청자에게 제시하는 정보로, 화자는 ‘退休’를 가장 정보 가치가 높은 정보적 초점으로 나타낸다. 이 경우에 ‘老張’의 지시체는 화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대상으로 주어진 정보인 반면, ‘明年’과 ‘退休’는 모두 청자에게는 신정보가 된다. 그러나 ‘明年’과 ‘退休’가 모두 신정보이지만, (7)의 화자는 ‘明年’보다 ‘退休’를 좀 더 정보 가치와 의사소통역량이 높은 정보적 초점으로 선택하여 문미에 놓는다. 이처럼 화자의 관점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 정보적 초점을 문미에 배치한다.

(7)과는 달리,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답하는 경우에 정보적 초점의 위치는 질문자가 사용한 의문사에 의해 결정된다.

- (8) a. A: 誰明年退休?  
(누가 내년에 퇴직하니?)  
B: 老張明年退休。  
(張형이 내년에 퇴직해.)
- b. A: 老張什麼時候退休?  
(張형은 언제 퇴직하니?)  
B: 老張明年退休。  
(張형은 내년에 퇴직해.)
- c. A: 老張明年做什麼?  
(張형은 내년에 무엇을 하니?)  
B: 老張明年退休。(徐烈炯·潘海華 2005:13)  
(張형은 내년에 퇴직해.)

(8a-c)에서 A의 질문에 대하여 B는 ‘老張明年退休’로 대답한다. 그러나 A가 사용한 의문사에 따라 정보적 초점이 달라진다. A가 ‘誰’를 사용한 (8a)에서 B는 ‘誰’에 해당하는 ‘老張’을 정보적 초점으로 문두에 배치하고, ‘什麼時候’를 사용한 A의 질문(8b)에 대한 대답으로 B는 ‘明年’을 정보적 초점으로 문중에 배치하며, ‘做什麼’를 사용한 A의 질문(8c)에 대한 B의 대답에서는 정보적 초점 ‘退休’를 문미에 배치한다. 이처럼 B가 수동적인 입장에서 A의 질문에 대답하는 경우에 정보적 초점은 A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가 된다. 이 경우에 B는 단지 대화의 협력원칙(co-operative principle)<sup>7)</sup>에 의해 정보를 제공할 뿐이므로 정보적 초점의 선택과 배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동일한 문장 ‘老張明年退休’을 사용하더라도 정보적 초점이 달라짐에 따라 억양(重音)을 달리한다.

정보적 초점과는 달리, 대조적 초점은 문장의 어느 곳이나 나타날 수 있다.

7) 대화의 협력원칙은 Grice(1975: 45)가 제시한 것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각 단계에서 대화의 방향이나 목적에 의해 요구되는 만큼 기여하라’라는 것이다.

- (9) a. 是**我**喝過白酒的。  
 (내가 고량주를 마셔봤어.)  
 b. 父親的病是**兩年前**做的手術。(《作家文摘》2000)  
 (아버지의 병은 이년 전에 수술했어.)  
 c. (我的學生手冊), 我是**在咱家的閣樓上**找到它的。  
 ((내 학생수첩), 나는 우리 집 옥탑 방에서 그것을 찾았어.)  
 d. 他一定是**用毒藥**害人的。(老舍《二馬》)  
 (그는 틀림없이 독약으로 사람을 해쳤어.)  
 e. 他隨即更正說: (爸爸)是**給我們**掙錢的。(梁實秋《孩子》)  
 (그는 즉시 말을 바꾸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돈을 벌었어.)  
 f. 瓦特是**發明**的蒸汽機。(袁毓林 2003:4)  
 (와트는 증기기관을 발명했어.)

(9a-f)에서 화자의 담화목적에 따라 대조적 초점이 달리 선택되며, 서로 다른 곳에 나타난다. (9a)에서는 행위자 ‘我’를, (9b)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兩年前’을, (9c)는 장소인 ‘在咱家的閣樓上’을, (9d)에서는 도구인 ‘用毒藥’을, (9e)에서는 수혜자 ‘給我們’을, 그리고 (9f)에서는 행위동작 ‘發明’을 각각 대조적 초점으로 나타낸다.<sup>8)</sup> 이들 대조적 초점은 ‘是’에 의해 표

8) 대조적 초점은 전제되는 잠재적인 대조의 대상들 중에서 선택되어 표현된다. (9a)의 경우, ‘X喝過白酒’와 ‘X’에 해당되는 대조적 후보로 張三, 李四, 王五 등을 전제하며, 전제되는 후보들 중에서 ‘白酒’를 마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화자’ 자신인 ‘我’라는 것을 초점으로 강조한다. (9b)의 전제는 ‘父親的病, X年前做過手術’과 ‘X’에 해당되는 때는 1년전, 2년전, 3년전 등’이며, 이들 대조적 후보 중에서 ‘兩年前’을 대조적 초점으로 부각시킨다. (9c)의 전제는 ‘(我的學生手冊), 我在X地方找到了它’로 X에 해당되는 장소는 ‘在爸爸的辦公室’, ‘在咱家的閣樓上’, ‘在咱家的地下室’ 등이다. 이들 잠재적 후보지 중에서 다른 아닌 ‘在咱家的閣樓上’을 대조적 장소 초점으로 표현한다. (9d)는 ‘그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사람을 해하였는데, 이 도구는 ‘도검’, ‘총기’, ‘독약’ 등 잠재적으로 사용 가능한 도구 중에서 ‘독약’을 대조적 초점으로 나타낸다. (9e)의 전제는 ‘(爸爸)給X掙了錢’으로, X에 해당되는 잠재적 수혜자는 ‘媽媽’, ‘爺爺奶奶’, ‘我們’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전제되는 이들 잠재적 대조 대상들 중에서 ‘我們’이 적합한 수혜자로 선택되어 대조적 초점으로 표현된다. (9f)는 ‘瓦特X了蒸汽機’를 전제로, X에 해당되는 ‘발명하다’, ‘개량하다’, ‘보급하다’ 등 잠재적인 행위동작들 중에서 ‘발명하다’라는 것을 대조적 초점으로 나타낸다.

현되며, 문장의 여러 곳에 나타난다.<sup>9)</sup>

### Ⅲ. 초점의 표현방법

화자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초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첨가’, ‘이동’, 생략 그리고 ‘전환’ 등의 방법을 들 수 있다<sup>10)</sup>. ‘첨가’의 방법으로 초점어(focuser)<sup>11)</sup> 사용을, ‘이동’의 방법으로 외치(extraposition)를, ‘생략’의 방법으로 예측 또는 복원 가능한 주어진 정보의 생략을, 그리고 ‘전환’의 방법으로 환유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이들 방법은 모두 특별한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특별한 원리는 의사소통 원리와 인지적 원리로 상호 보완적이다. 의사소통 원리는 ‘담화목적과의 관련성’ 및 ‘정보 가치의 정도’에 관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관여된 정보’보다 ‘직접적으로 관여된 정보’를, ‘정보 가치가 낮은 정보’보다 ‘높은 정보’를 초점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인지적 원리는 ‘표현의 현저성’과 ‘기억보존의 용이성’에 대한 것으로, ‘표현을 현저히 부각시키는 방법’과 전달되는 정보를 ‘용이하게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 1. 첨가를 통한 초점화

화자는 자신이 강조하려는 요소를 초점으로 현저히 표현하기 위해 의도

9) 박정구(2005:162)에서 대조적 초점은 일반적으로 문장의 앞부분에 위치하며 ‘我看的是書’와 같은 準分裂句에서만 문미에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9a-f)에서처럼, 대조적 초점은 문장 내 여러 곳에 나타난다.

10) 초점은 강세와 억양 같은 음운적 방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음운적 방법은 다음 연구의 주제로 남겨두겠다.

11) ‘초점어’란 절이나 문장에서 전달되는 특정한 요소에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하여 첨부하는 어휘를 가리킨다.

적으로 초점어 ‘只’, ‘是’, ‘還’, ‘也’ 등을 초점 요소 앞에 붙인다. ‘只’와 ‘是’는 대조적 초점을, 그리고 ‘還’과 ‘也’는 정보적 초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 (10) a. (張藝謀的妹妹不看武俠電影), **只張藝謀看武俠電影**.  
 ((張藝謀의 여동생은 무협영화를 안 보고), 張藝謀만 무협영화를 본다.)  
 b. (張藝謀不看其他電影), 張藝謀**只看武俠電影**.  
 ((張藝謀는 다른 영화는 안 보고), 張藝謀는 무협영화만 본다.)  
 c. (張藝謀不拍武俠電影), 張藝謀**只看武俠電影**.<sup>12)</sup>  
 ((張藝謀는 무협영화는 촬영하지 않고), 張藝謀는 무협영화를 보기만 한다.)

(10a-c)에서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초점어 ‘只’를 첨가하여 문장의 특정 요소를 대조적 초점으로 나타낸다. 초점어 ‘只’를 첨가하여 (10a)에서 문장 주어의 위치에 나타난 행위자 ‘張藝謀’를, (10b)에서는 행위동작(看)의 대상 ‘武俠電影’를, (10c)에서는 행위동작 ‘看’을 대조적 초점으로 나타낸다.

- (11) a. (不是我昨天買了那本書), **是他昨天買了那本書**.  
 ((내가 어제 그 책을 산 것이 아니라), 그가 어제 그 책을 샀다.)  
 b. (他不是上星期買了那本書), **他是昨天買了那本書**.  
 ((그는 지난주에 그 책을 산 것이 아니라), 그는 어제 그 책을 샀다.)  
 c. (他昨天不是複印了那本書), 他昨天**是買了那本書**.  
 ((그는 어제 그 책을 복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어제 그 책을 샀다.)  
 d. 他昨天買了**的是那本書**.  
 (그가 어제 산 것은 그 책이다.)

12) ‘초점어 只는 술어동사 뒤에 나타날 수 없다’는 통사적 위치 제약이 있다.(張藝謀不拍武俠電影), \*張藝謀看只武俠電影.

(11a-d)에서 특정한 요소를 초점으로 현저히 드러내기 위해 그 요소 앞에 초점어 ‘是’를 첨가한다. (11a)에서 주어이며 행위자 ‘他’를, (11b)에서는 책을 구입한 날 ‘昨天’을, (11c)에서는 행위동작 ‘買了’를, 그리고 (11d)에서는 행위동작(買)의 대상인 ‘那本書’를 각각 대조적 초점으로 나타내기 위해 그 앞에 ‘是’를 첨가 한다.

추가 의미 나타내는 초점어 ‘還’ 또는 ‘也’를 첨가하여 정보적 초점을 나타내는 경우를 보자.

- (12) a. (我花的錢真多), 我還給了張小姐五百塊錢。  
 ((난 쓴 돈이 너무 많아), 나는 또 張양에게도 오백 원을 주었다.)  
 b. (上次張小姐住院), 我還給了張小姐五百塊錢。  
 ((지난 번 張양이 입원했을 때), 나는 張양에게 또 오백 원을 주었다.)  
 c. 院長說她讀過很多文學書, 還學著外語。(畢漱敏《預約死亡》)  
 (원장은 그녀가 많은 문학서적을 읽었고, 또 외국어도 배운다고 말했다.)

(12a-c)에서 초점어 ‘還’을 초점 요소 앞에 첨가하여 그 초점 요소가 추가적인 정보임을 나타낸다. (12a)에서 ‘張小姐’를, (12b)에서는 ‘五百塊錢’을, 그리고 (12c)에서는 ‘學著外語’를 추가적인 의미의 정보적 초점으로 나타낸다. 이 경우에 정보적 초점은 신정보로 초점어 ‘還’의 우측에 나타난다.

- (13) a. 羊肉、米飯, 他倒不稀罕: 他見過, 也吃過。(汪曾祺《黃油烙餅》)  
 (양고기, 쌀밥이 그에게는 희귀한 것이 아니다. 그는 본적도 있고, 먹어도 봤다.)  
 b. 他是一位領袖, 也是一位感情極其豐富的爸爸。(作家文摘2000)  
 (그는 지도자이며, 감정이 풍부한 아버지이기도 하다.)  
 c. 爸爸喜歡我, 媽媽也喜歡我。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고, 어머니도 나를 좋아한다.)

추가 의미 나타내는 초점어 ‘也’를 첨가하여 (13a)에서 ‘吃過’를, (13b)에서는 ‘一位感情極其豐富的爸爸’를, 그리고 (13c)에서는 ‘媽媽’를 정

보적 초점으로 나타낸다. 초점어 ‘也’를 사용하는 경우에 정보적 초점은 ‘也’의 우측뿐만 아니라 좌측에도 놓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화자의 담화목적과 직접 관련되고 정보 가치가 높은 신정보 요소를 초점 요소로 선택하고, 이를 청자의 의식에 뚜렷이 부각시키기 위하여 초점어 ‘只’, ‘是’, ‘還’, ‘也’ 등을 첨가한다. 이들 초점어 중에서 ‘只’ 또는 ‘是’가 첨가된 초점은 대조적 초점인 반면, ‘還’ 또는 ‘也’가 첨가된 초점은 정보적 초점이다.

## 2. 이동을 통한 초점화

화자는 담화목적에 따라 특정한 요소를 초점으로 선택하며, 선택된 초점에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이동’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초점을 문미에 배치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토대로 한다.

### (14) 我讀過《燕山夜話》。

(나는 《연산야화》를 읽은 적이 있다.)

⇒ 《燕山夜話》我讀過。(梁曉聲《一個紅衛兵的自白》)

(《연산야화》는 내가 읽은 적이 있다.)

(14)에서 화자가 《燕山夜話》를 정보적 초점으로 제시하기 위해 문미에 놓는다. 이 경우에 화자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燕山夜話》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이외는 달리, 화자가 《燕山夜話》를 ‘읽은 경험’을 정보적 초점으로 전하려 하는 경우에는 《燕山夜話》를 문두로 이동하고 ‘행위동작의 경험’을 나타내는 ‘讀過’를 문미에 놓는다.<sup>13)</sup>

13) ‘《燕山夜話》我讀過’에서 ‘《燕山夜話》’는 문두로 이동하여 주제가 된 유표적 주제(marked topic)이며, ‘我讀過’는 주제에 대한 설명(comment)이다. 주제에 대한 설명 ‘我讀過’에서 ‘讀過’가 초점이다.

- (15) a. 他拍了拍桌子。  
 (그는 탁자를 툽툽 쳤다.)  
 ⇒ 他把桌子拍了拍。  
 (그는 탁자를 툽툽 쳤다.)
- b. 她洗了洗衣服。  
 (그녀는 의복을 세탁했다.)  
 ⇒ 她把衣服洗了洗。  
 (그녀는 의복을 세탁했다.)
- c. 他扔了那本書。  
 (그는 그 책을 버렸다.)  
 ⇒ 他把那本書扔了。  
 (그는 그 책을 버렸다.)

(15a-c)에서 정보적 초점으로 문미에 제시된 대상(桌子, 衣服, 那本書)을 행위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구(拍了拍, 洗了洗, 扔了)의 앞으로 이동하고, 동사구를 문미에 놓음으로써 ‘행위동작’을 정보적 초점으로 나타낸다. 이 경우에 동사구 앞으로 이동된 대상 앞에 ‘把’를 첨부한다.

정보적 초점으로 제시된 피행위자를 문장의 앞쪽으로 이동하여 비초점화하고, 동사구를 문미에 배치함으로써 ‘행위동작’을 정보적 초점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 (16) a. 我逼過他。  
 (나는 그를 핍박한 적이 있다.)  
 ⇒ 我向他逼過。  
 (나는 그에게 핍박한 적이 있다.)
- b. 我安慰了安慰他。  
 (나는 그를 위로하고 또 위로했다.)  
 ⇒ 我對他安慰了安慰。  
 (나는 그에게 위로하고 또 위로했다.)
- c. 我們警告了他。  
 (우리는 그에게 경고했다.)



⇒ 我們向他警告了。  
(우리는 그에게 경고했다.)

(16a-c)에서 문미초점으로 제시된 피행위자(他. 他, 他)를 동사구의 앞으로 이동함으로써 문미에 위치하게 된 동사구가 나타내는 ‘행위동작’을 초점화한다. 또한 전치된 피행위자에 ‘對’ 또는 ‘向’을 첨부한다. 다시 말하면, (16a)에서는 ‘逼過’를, (16b)에서는 ‘安慰了安慰’를, 그리고 (16c)에서는 ‘警告了’를 각각 정보적 초점으로 나타낸다.

(15)와 (16)에서처럼 화청자가 알고 있거나 정체확인이 가능한 대상이나 피행위자를 행위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구 앞으로 이동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초점으로 전환된 행위동작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이러한 이동은 대상이나 피행위자가 주어진 정보일 경우에 일어난다.

장소를 문미초점으로 제시한 문장에서 장소어구를 동사구의 앞으로 이동함으로써 문미에 놓이게 된 동사구의 ‘행위동작’을 초점화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 (17) a. 吃食堂。  
(식당에서 식사하다.)  
⇒ 在食堂吃。  
(식당에서 식사하다.)
- b. 請走便道。  
(인도로 다니시오.)  
⇒ 請在便道走。  
(인도로 다니시오.)
- c. 調查過不少地方。  
(많은 곳에서 조사했었다.)  
⇒ 在不少地方調查過。 (李臨定 1986 : 9)  
(많은 곳에서 조사를 했었다.)

(17a-c)에서 정보적 초점으로 문미에 제시된 장소(食堂, 便道, 不少地

方)를 행위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구(吃, 走, 調查過) 앞으로 이동함으로써 문미에 놓이게 된 동사구의 ‘행위동작’(吃, 走)이나 ‘행위동작의 경험’(調查過)을 초점화한다. 이때 전치된 장소어구 앞에 ‘在’를 첨부한다.

수혜자를 초점화하기 위해 대상을 문장에서 앞쪽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18) 請給我菜單。

(나에게 메뉴를 주세요.)

⇒ 請把菜單給我。

(메뉴를 나에게 주세요.)

(18)에서 정보적 초점으로 문미에 제시된 ‘菜單’을 동사구의 앞으로 이동함으로써 ‘我’를 대조적 초점으로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메뉴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나에게 달라’는 대조적 의미를 전달한다. 이 경우에 전치된 대상 ‘菜單’ 앞에 ‘把’를 첨부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화자의 담화목적에 따라 특정한 요소를 초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문미에 있던 요소를 문장에서 앞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초점화하려는 요소를 문미에 놓게 된다. 이동으로 인해 문미에 놓이게 된 요소는 정보적 초점이 될 수도 있고 대조적 초점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문 요소의 이동은 초점의 전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문미에 나타난 초점에 청자의 관심을 끌어들이므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인다.

### 3. 생략을 통한 초점화

화자는 정보 가치가 높은 신정보를 초점으로 현저히 부각시키기 위해 주어진 정보 또는 잉여적인 정보를 생략한다. 이러한 방법은 대화의 단위를 이루는 질문-응답, 서술-질문, 서술-제안, 질문-응답-서술 등의 대화에서 자주 사용된다.

먼저 질문과 응답으로 이루어진 대화로, 의문사를 사용하는 경우와 사

용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자.

- (19) A: 是誰派你到這裡來的?  
 (누가 너를 여기로 파견했니?)  
 B: 李總。  
 (李 총재.)

(19)에서 A가 나타내는 질문의 초점 ‘誰’에 대하여 B는 ‘李總派我到這裡來的’보다는 ‘李總’으로 대답한다. 이 경우에 A의 질문에서 언급된 주어진 정보 ‘派你到這裡來的’을 생략하고, A의 질문과 직접 관련되며 정보 가치가 높은 ‘李總’을 정보적 초점으로 간결하며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표현한다.

- (20) A: 他吃了幾個蘋果?  
 (그는 몇 개의 사과를 먹었어?)  
 B: 三個。  
 (세 개.)

(20)에서 의문사 ‘幾’를 사용한 A의 질문 ‘他吃了幾個蘋果?’에 대한 응답에서 B는 선행질문(A)에서 언급된 ‘他吃了’와 ‘蘋果’를 생략하고 ‘三個’를 정보적 초점으로 전달한다. 이처럼 선행발화에서 이미 언급되어 활성화된 정보를 생략하고, 상대방의 질문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초점으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함으로써 대화의 협력원칙을 지키고 있다.<sup>14)</sup>

- (21) A: 你們家鐘點工每天來搞衛生嗎?  
 (너의 집엔 파출부가 매일 와서 청소하니?)  
 B: 星期天不。 (陳偉英 2005:179)  
 (일요일에는 안 와.)

14) 생략을 통한 초점화는 ‘명료히 하라’와 ‘간결히 하라’라는 대화 협력원칙의 하위 격률인 태도의 격률(the maxim of manner)을 준수하는 경우이다.

(21)은 의문사를 사용하지 않은 질문-응답의 경우로, A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B는 ‘我們家鐘點工星期天不來搞衛生’을 사용하지 않고 ‘星期天不’만을 사용한다. 선행질문에서 이미 언급되어 활성화되어 있는 주어진 정보 ‘我們家鐘點工……來搞衛生’을 생략함으로써 질문(A)의 초점 ‘每天來’에 대한 대조적 초점으로 ‘星期天不’를 부각시켜 대답(B)한다. 만약 ‘我們家鐘點工……來搞衛生’을 생략하지 않는다면, ‘星期天不’이 대조적 초점으로 부각되는 명료함의 정도가 매우 낮아진다. 이 경우에 대조적 초점으로 전달되는 ‘星期天不’는 B가 언급함으로써 A가 알 수 있는 신정보이다.

서술과 질문으로 이루어진 대화의 경우를 보자.

(22) A: 我想把美元換成人民幣。

(나는 미국 달러를 인민폐로 바꾸고 싶어.)

B: 你要換多少?

(너 얼마 바꿀래?)

A: 三百美元。今天的匯率是多少?

(삼백 달러. 오늘 환율은 얼마니?)

B: 一比八。 (진현 2009:186)

(일 대 팔.)

(22)에서 A는 서술문을 사용하여 요청의 의미를 전달한다. 이에 대하여 B는 ‘你要換多少錢?’보다는 ‘錢’을 생략한 ‘你要換多少?’로 질문한다. ‘달러’와 ‘위안화’가 모두 ‘돈’을 나타낸다는 세상지식을 토대로 복원 가능한 ‘錢’을 생략하고 ‘多少’를 정보적 초점으로 표현한다. 이처럼 생략된 B의 질문 ‘你要換多少?’에 대해 A는 ‘我要換三百美元’이 아닌 ‘三百美元’으로 응답한다. 화자(A) 자신을 지시하는 ‘我’와 선행질문(B)에서 이미 언급된 주어진 정보 ‘要換’을 생략함으로써 ‘三百美元’을 초점으로 현저히 부각시킨다. 마찬가지로, ‘今天的匯率是多少?’라는 A의 질문에 대하여 ‘今天的匯率是一比八’로 응답하지 않고, 앞에서 언급되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주어진 정보 ‘今天的匯率是’를 생략하고 신정보인 ‘一比八’만을 정보적 초점

으로 명확하게 제시한다.

서술-제안형의 대화에서 생략을 통하여 대조적 초점이 부각되는 경우를 보자.

- (23) A: 我的手錶丟了。  
 (내 손목시계 분실했어.)  
 B: 買只**新的**。  
 (새 시계를 사.)

(23)에서 A의 발화 ‘我的手錶丟了’에 대하여 B는 ‘你買只新的手錶’보다는 ‘買只新的’를 사용하여 신정보를 제안한다. 이 경우에 상대방(A)을 지시하는 ‘你’와 A의 발화에서 언급된 ‘手錶’를 생략하고, ‘丟了的手錶(舊手錶)’와 대조가 되는 ‘新的’을 대조적 초점으로 나타낸다.

위에서처럼 문장의 일부 요소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장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 (24) A: 你怎麼了?  
 (너 왜 그래?)  
 B: 我**頭很疼**。  
 (나 머리가 많이 아프다.)  
 A: 感冒了嗎?  
 (감기 걸렸니?)  
 B: **對**。我想回房間休息。  
 (응. 나는 방에 돌아가서 쉬고 싶어.)

(24)에서 A의 질문 ‘你怎麼了?’에 대해 B는 신정보인 ‘我頭很疼’으로 대답한다. 이 경우에 ‘頭很疼’이 정보적 초점으로 제시되고, 이 초점은 후행 발화 ‘感冒了嗎?’를 이끌어 내는 유인자의 역할을 한다.<sup>15)</sup> 또한 A의 질문

15) 일상적인 체험을 근거로 ‘頭很疼’이 ‘感冒’의 ‘전형적인 증상’임을 화청자가 알

‘感冒了嗎?’에 대하여 B는 ‘對。我感冒了’로 대답하지 않고, 문장 ‘我感冒了’를 생략하고 ‘對’로만 대답한다. 다시 말해서, ‘A의 질문이 옳음’을 초점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보조적인 정보로 ‘我想回房間休息’을 추가한다. 이처럼 생략은 간결한 표현으로 초점을 현저히 부각시킴으로써 언어의 경제성과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담화의 수단이다.

(25) A: 我爸爸最近情緒不太好。

(나의 아버지는 최근에 심기가 그다지 좋지 않다.)

B: 爲什麼?

(왜 그래?)

A: 他上個月退休了。(장금평·왕효규 2006:111)

(그는 지난달에 퇴직했어.)

(25)에서 A의 발화 ‘我爸爸最近情緒不太好’에 대해 B는 ‘爲什麼你爸爸最近情緒不太好?’로 반응하지 않고, 이미 언급된 문장 ‘你爸爸最近情緒不太好’를 생략하고, 의문사 ‘爲什麼’만을 사용하여 ‘원인’을 질문의 초점으로 뚜렷하게 부각시킨다. 만약 ‘爲什麼你爸爸最近情緒不太好?’로 질문한다면, 질문의 초점이 전달되는 현저성은 매우 낮게 될 것이다. 이외에 시간이나 장소 등을 질문의 초점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도 선행질문에서 언급된 문장을 생략한다.

(26) A: 張三今天來過嗎?

(張三 오늘 왔었니?)

B: 沒有, 可是一會兒會來, 他的車子有問題。

(안 왔어, 하지만 조금 후에 와, 그의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어.)

A: 又有問題了! 真是爛貨。(羅仁地 2004:344)

(또 문제가 생겼어! 진짜 고물이네.)

고 있다.

질문-응답-서술로 이어지는 대화 (26)에서는 부분 생략과 문장 생략이 모두 나타난다. 담화에 처음 소개된 대상이나 문장이 후행발화에서 다시 언급되는 경우에 이들은 생략되고 초점 요소만이 제시된다. A의 질문 ‘張三今天來過嗎?’에 대한 응답에서 B는 ‘他(張三)今天沒有來’로 대답하지 않고, 이미 언급된 문장 ‘張三今天來’는 생략하고, 부정어 ‘沒有’만을 초점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발화에서 ‘張三’을 생략하고 ‘一會兒會來’만을 초점으로 제시한다. 또한 ‘張三’이 늦게 오는 이유로 ‘他的車子有問題’를 신정보로 소개한다. 이에 대해 A도 선행발화(B)에서 언급된 ‘他的車子’는 생략하고 ‘又有問題了!’와 ‘真是爛貨’만을 초점으로 전달한다. 이처럼 선행발화에서 언급되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주어진 정보를 생략하고, 신정보를 나타내는 초점을 간단하며 뚜렷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정보전달의 간결성과 현저성, 그리고 정보 이해의 용이성을 추구하게 된다.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화자의 담화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가장 정보 가치가 높고 의사소통역량이 높은 정보를 초점으로 선택한다. 또한 선택된 정보를 생생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선행발화에서 언급된 주어진 정보 또는 담화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정보를 생략한다. 이처럼 생략을 통해 초점을 최소의 노력으로 현저히 부각시킴으로써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한다. 단 선행발화나 담화상황을 토대로 생략된 요소를 용이하게 복원할 수 있는 경우에만 생략을 사용한다.

#### 4. 전환을 통한 초점화

초점을 나타내기 위한 전환의 방법으로 환유를 사용한다. 일상적인 담화에서 화자가 지시대상의 특성, 특징, 능력, 전문분야 등을 초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환유를 자주 사용한다.

환유는 물리적 또는 신체적 경험을 토대로 하나의 개념적 개체를 사용하여 동일한 개념영역에 속하는 다른 개념적 개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환유적 개념과 환유적 표현으로 이루어진다. 환유적 개념은 [部分代替整體]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냄), [整體代替部分](‘전체’로 ‘부분’을 나타냄), [部分代替部分](‘부분’으로 다른 ‘부분’을 나타냄)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sup>16)</sup> 이들 환유적 개념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 환유적 표현이다.

특정한 지시대상을 초점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환유적 개념으로는 [部分代替整體]를 들 수 있다.

- (27) a. 他是我們班的**頭兒**。  
(그는 우리 반의 우두머리이다.)  
b. 他是**千里眼**。  
(그는 천리안이다.)  
c. 我因為個子高, 被選做**旗手**。(王小波《我自己》)  
(나는 키가 커서 기수로 선발되었다.)  
d. 那個**婆婆嘴**又來了。(蘇好《陽光想要隨風遠行》)  
(그 수다쟁이가 또 왔다.)

(27a-d)는 환유적 개념 [部分代替整體]와 이것의 하위 환유적 개념 [身體的一部分代替整個人]을 토대로 하는 환유적 표현들이다. ‘身體的一部分’(부분)으로 ‘整個人’(전체)을 나타내는 경우라도 화자가 ‘지시대상(整個人)의 어떤 면을 초점으로 부각시키려 하는 가’ 하는 담화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신체의 부분이 선택된다. 다시 말하면, (27a)에서 ‘사람’을 지시하기 위하여 ‘頭’(머리)를 사용한 것은 ‘頭’의 위치적 특성(가장 높은 위치)과 기능적 특징(판단 및 통제 능력)을 지시대상 ‘他’의 특성과 능력으로 전환하여 초점화하려는 화자의 담화목적에 따른 것이다. (27b)에서 화자는 ‘眼’을 사용하여 지시대상 ‘他’의 보는 능력의 탁월함(사물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초점화하며, (27c)의 화자는 ‘手’를 사용하여 손을 많이 사용하는 분야의 ‘기능인’(깃발을 드는 사람)을 초점으로 부각시킨다. (27d)의 화자는 ‘嘴’를 사용하여 ‘말 많은 사람’(婆婆嘴)의 수다스런 특성을 초점으

16) 정희자, 《담화와 비유어》, 서울: 한국문화사, 2004, 231-244쪽 참조.



로 부각시킨다. 이처럼 지시대상의 특성, 특징, 능력, 전문분야 등을 구체화하여 초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그에 맞는 ‘신체어’(頭, 眼, 手, 嘴 등)를 사용하여 ‘특정한 사람’을 지시하는 환유적 표현을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것(頭, 眼, 手, 嘴 등)이 추상적인 것(특성, 특징, 능력, 전문분야 등)보다 인지적 현저성이 높기 때문에 전자로 후자를 표현하는 환유를 사용한다.

또 다른 경우로, 동일한 ‘신체어’(예:手)를 사용하여 특정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지시하는 경우라도, 지시되는 사람의 ‘어떤 점을 초점으로 부각시키는가’에 따라 환유적 표현이 달라지기도 한다.

- (28) a. 這方面他是**老手**.  
 (이 방면은 그가 베테랑이다.)  
 b. 這方面他是**新手**.  
 (이 방면은 그가 풋내기이다.)  
 c. 這方面他是**生手**.  
 (이 방면은 그가 신출내기이다.)

(28a-c)에서처럼 지시되는 사람(‘他’)의 ‘경륜의 정도’를 초점화하기 위하여 ‘老手’, ‘新手’, ‘生手’를 사용한다. ‘老手’(28a)는 ‘경륜이 많은 사람’을, ‘新手’(28b)는 ‘풋내기’를, 그리고 ‘生手’(28c)는 ‘신출내기’를 나타낸다.

위에서처럼, 지시적 전환의 방법으로 환유를 사용하여 담화목적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신체어를 사용하여 지시되는 사람의 특성, 특징, 능력, 전문분야 등을 초점으로 생생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인다.

#### IV. 맺음말

본 논문은 효율적인 정보 전달과 이해를 위한 현대중국어의 초점 표현

방법을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화자는 담화목적과 직접 관련되며 정보 가치가 가장 높은 요소를 초점으로 선택한다. 그리고 이 초점을 청자의 의식 속에 현저히 부각시킬 수 있도록 표현하고, 가능한 한 청자의 기억에 오래 보존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초점을 정보적 초점과 대조적 초점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첨가’, ‘이동’, ‘삭제’, ‘전환’의 방법으로 표현됨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적 초점은 신정보를 나타내는 요소가 선택되며,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기억에 오래 보존될 수 있는 문미에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대조적 초점은 신정보는 물론 주어진 정보를 나타내는 요소도 선택되며, 문장의 어느 곳이나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첨가의 방법으로 초점어 ‘只’, ‘是’, ‘還’, ‘也’ 등을 초점 요소의 앞 또는 뒤에 붙임으로써 그 초점 요소에 청자의 주의를 모은다. ‘只’와 ‘是’는 대조적 초점임을 나타내는 반면, ‘還’과 ‘也’는 정보적 초점임을 나타낸다.

셋째, 이동의 방법을 사용하여 초점을 바꾼다. 문미에 놓인 초점 요소를 문두 또는 동사구의 앞으로 이동하여 비초점화하고, 새로이 초점화하려는 요소를 문미에 놓는다. 이러한 문 요소의 이동을 통하여 청자의 주의를 문미에 나타난 새로운 초점에 환기시킨다. 이 경우에 이동되는 요소는 주어진 정보를 나타낸다.

넷째, 생략의 방법을 사용하여 초점표현의 간결성과 이해의 용이성을 꾀한다. 선행발화에서 이미 언급되었거나 담화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주어진 정보 또는 잉여적인 정보를 생략하고 초점만을 부각시킨다.

다섯째, 전환의 방법으로 환유를 사용한다. 지시대상의 특성, 특징, 능력, 전문분야 등을 초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이와 관련된 신체어를 사용하여 특정한 사람을 지시한다. 이 경우에 구체적인 것(신체어)을 사용하여 추상적인 것(특성, 특징, 능력, 전문분야 등)을 초점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전달된 정보를 용이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결론으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화자는 담화목적에 직접 관련되며

가장 정보 가치가 높은 요소를 초점으로 선택하고, 이를 간결하고 두드러지게 표현한다. 이로써 청자로 하여금 용이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초점은 담화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초점화의 방법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의사소통의 기법에 관한 교육이 요구된다.

<參考文獻>

- 박정구, 《중국어 화용론》, 서울: 신성출판사, 2005.
- 이범열, <현대중국어 '是...的' 구문의 생성과 사용>, 《동북아문화연구》 제 22집, 2010.
- 장금평·왕효규, 《스피드중국어회화》, 서울: 동양문고, 2006.
- 정희자, 《담화와 추론》, 서울: 한국문화사, 2002.
- 정희자, 《담화와 비유어》, 서울: 한국문화사, 2004.
- 진 현, 《중국어 첫걸음의 모든 것》, 서울: 동양문고, 2009.
- 陳偉英, <省略與省力>, 《浙江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35卷, 第6期, 2005.
- 馮勝利, 《漢語的韻律, 詞法與句法》,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7.
- 李臨定, 《現代漢語句型》, 北京: 商務印書館, 1986.
- 羅仁地, <語用關係與漢語的詞序>, 詹衛東譯, 《語言學論叢》第三十輯, 北京大學漢語語言學研究中心語言學論叢編委會編, 2004.
- 徐 杰, 《普遍語法原則與漢語語法現象》,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1.
- 徐烈炯·潘海華, 《焦點結構和意義的研究》, 北京: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2005.
- 殷何輝, 《焦點敏感算子“只”的語義分析》, 北京: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07.

- 袁毓林, <從焦點理論看句尾‘的’的句法語義功能>, 《中國語文》 第1期, 2003.
- Chen, R., “Communicative Dynamism and Word Order in Mandarin Chinese”, *Language Sciences*, 17, 2, 1995.
- Firbas, J., “On Defining the Theme in Functional Sentence Analysis”, *Travaux Linguistique de Prague* 1,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66a.
- Grice, H. P., “Logic and Conversation”,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1975.

### <中文提要>

本文從語言交際的角度重點考察了不同焦點的表達在信息傳達和理解方面的一些特點。在語言交流過程中, 說話人一般會選擇價值最高的信息為焦點, 以便讓信息在聽話者頭腦中留下長時間的記憶。

本文認為焦點可分為信息焦點和對比焦點, 這兩種不同的焦點可以通過‘添加’、‘移位’、‘刪除’以及‘轉換’的方式出現在句子裡。下面是筆者整理的結論:

第一, 信息焦點由載有新信息的句法成分充當。說話人一般把它放到被強調或凸顯的位置或句末。與此相反, 句子的新舊信息都可以成為對比焦點, 因此, 我們可以說對比焦點可以出現在句子的任何地方。

第二, ‘只’、‘是’、‘還’、‘也’等焦點標記詞具有在焦點的前後位置標記焦點的功能。通常情況下, ‘只’和‘是’標記對比焦點;‘還’和‘也’標記信息焦點。

第三, 移位可以改變句子的焦點。換句話說, 人們會選擇用‘移位’的手段對句末的信息焦點進行脫焦點化處理, 把它移到句首或謂語動詞的前面。再把想要強調的成分放到句末位子, 使它成為焦點。

第四, 通過‘省略’法的運用可以得到句子的既簡潔又容易被理解的焦點。

已經在上文裡出現過或在話語裡能預測的已知信息和多餘的信息可以省略不說。

第五, ‘轉喻’可以是‘轉換’的一種表現: 爲凸顯被指示物的特性、特點、能力、專業領域等信息, 說話人可以拿身體語來指示整個人。這時可以用具體物(身體語)表示被指示物的抽象特性、特點、能力、專業領域等, 以便有效的傳達信息, 理解信息。

總而言之, 爲了更有效地傳達信息, 說話人會選擇最重要的信息爲焦點, 採用最簡便、最顯著的表達方式, 讓聽話人更容易理解信息和記住信息。

주제어 : 焦點, 信息焦點, 對比焦點, 添加, 移位, 省略, 轉換

